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6)

원영인(遠倭人)

아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대선(大選)이 몇 달 앞으로 왔다고 야단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열추 헤아려 봐도 열은 넘고 스무 명은 될 듯싶다. 이럴 때면 생각나는 도청도설(道廳塗說)이 있다.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한참 후에는 '내가 투표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투표한 자기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다.'고 하는 말이다. 투표할 때야 후보자가 말하는 것을 믿고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하는 것을 보니 기대했던 것에 아주 못 미치지 때문에 그 실망이 커서 투표한 자기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책(自責)하는 말일 터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선자가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고, 속였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무리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국민을 속일 리야 없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후보 시절의 약속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사술(邪術) 정도도 보였다는 말이다.

그러하니 이제는 후보자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당장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 보려고 자기가 당선되기만 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당장 취지도 될 것이고 집도 마련될 것이며, 여유 있는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해도, 유권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속지 않을 것이다. 속지 않는 유권자가 되어야 투표를 하고서 다시는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자책은 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속입수를 쓰는 사람은 그 방법이 교묘 묘하다. 이 속이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다. 보통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술(邪術)

에 걸려들어 나라 전체를 기울게 한 황제도 있다. 그가 바로 전한시대 원제(元帝)다. 원제는 전한시대 중흥의 군주로 칭송받는 선제(宣帝)의 아들로 태어나서 황제에 오른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원제는 자기 아버지 선제가 유학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법가적 방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을 보고 인정(仁政)을 베풀라고 한 일이 있다. 이정도면 선량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그가 환관 석현(石顯)의 사술에 넘어갔다. 원제는 선량하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결단력이 없었고, 인정(人情)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석현 같은 간사(姦邪)한 사람을 미처 파악하지도 못했고, 어렴풋이 알았으면서도 잘라내지도 못하였다.

원제가 등극했을 때에 원제 앞에는 두 세력이 버티고 있었다. 한 세력은 그의 아버지인 중흥의 군주 선제가 뽑아 놓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巫蠱)의 화(禍)를 입어 황실에서 쫓겨난 할머니의 손에 불쌍하게 자란 선제가 황제로 등극한 후에 불쌍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외척들이었다. 모두 선제 때 걸리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외척은 선제시절에 형편없는 자리에서 이끌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였지만 원제가 등극했을 때는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능력에서 경쟁을 통하여 올라온 관료그룹을 능가할 수는 없으면서도 높은 자리를 탐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장래보다 자신의 영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하여 올라온 관료그룹과는 능력에서 차이가 많았기에 황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음에도 갖고 싶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불만이

었다.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 궁궐에서 생활하는 환관이었다. 이때에 환관 중에서 영악한 사람인 석현(石顯)은 관료와 외척의 대립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간사한 수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그러자면 황제와 인척관계에 있지만, 재주가 없어서 좋은 자리를 갖고 싶은 외척들의 욕심을 자극하며 속입수를 써서 이들을 이용하여 관료군을 몰아내야 했다. 정상적인 관료그룹이 있는 한 환관은 분에 넘치는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황제인 원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좀 아둔하여 분명히 인식치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현은 외척들을 유혹하여 당시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던 소망지(蕭望之)를 모함하여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석현이 소망지를 모함해서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석현이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때 석현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묘한 꾀를 썼다. 당시에 유학에서는 제일이라고 존경받는 공우(貢禹)를 모셔온 것이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는 자기가 한 일은 나라를 위하여서 한 일이지 결코 개인 욕심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행동이었다고 강변했다. 이것이 그의 사술(邪術)이었다. 그는 '소망지를 죽여 한 것은 자기 개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만약에 개인 욕심에서였다면 공우 같은 저명한 인사를 모셔 올 리가 없다'는 자기의 순수함을 보여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 하나로 석현은 소망지를 모함해 죽인 데 대한 비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정말 공우가 정치에 도움이 될 사람이었을까? 공우는 분명히 명성에서는 나라에서 제일이었다. 그러한 그가 명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면 원제에게 무슨 도움이 될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니 당연히 원제에게 환관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분절적인 것을 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겨우 '근검절약하십시오.'하는 정도로 입막음을 하고 끝냈다. 공우를 천거한 석현은 공우의 이러한 수준까지 파악하고 조치하였다고 본다면 석현은 정말로 고도의 속입수를 쓴 것이고 그 전략에 황제에서 백성들까지 속은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경방(京房)이 원제를 만나서 직접 석현을 거론하면서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하였지만

원제는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경방을 신뢰하기는 하였지만 우유부단한 원제는 우물쭈물하였고, 그 사이에 석현은 경방을 밟고 걸리게 하여 죽였다. 이제 석현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만이 출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석현을 중심으로 한 뇌량(牢梁), 오록충종(五鹿充宗) 같은 패거리들이 나라의 정치를 제멋대로 하였다. 가지고 싶은 관직이면 마음대로 두세 개씩 가졌다. 이러한 사실을 집착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벼룩은 노래가 퍼져갔다. '뇌(率)씨야!, 석(石)씨야! 오록(五鹿)의 문객들아! 인장(印章)은 어찌 그리 겹겹이 달고 다니고, 인장을 매단 끈은 어찌 그리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가?'

황제는 속일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인심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린 석현은 더욱 겁이 났다. 자기가 황제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나는 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제의 신임이 가장 중요하였던 터라 원제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였다.

석현은 궁궐 밖에 있는 여러 관사(官司)를 돌아 볼 일이 있는 것을 기화로 황제에게 말하였다. '제가 밖에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혹 늦어서 궁궐문을 닫은 후까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리(宮吏)에게 궁궐 문을 열게 하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석현은 환관이어서 궁궐로 돌아와야 하고 궁궐문은 일정 시간이 되면 닫아걸고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요청하였다.

아무런 의심 없는 원제는 이를 허락하였고, 석현은 밖에 나갔다가 고의로 늦게 돌아와서는 궁궐을 지키는 궁리에게 신분을 밝히고 황제에게 조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궁궐문을 열게 하였다. 얼마 뒤에 과연 관리들은 원제에게 편지를 올려서 석현이 제멋대로 조서를 고쳐서 궁궐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고발하였다. 조서를 고쳤다는 것은 중대 범죄인데, 석현이 밤중에 조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궁궐문을 열게 한 것이 조서를 고친 죄라고 고발한 것이다.

석현은 이럴 것을 미리 짐작하고 했던 일인데도 석현의 궁중이름 모르는 원제는 석현을 보자 그 편지를 내보여 주었다. 이 편지를 본 석현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원제에게 호소하였다. 폐하께서

저를 사사롭게 아끼시고 일을 맡기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하며 저를 모함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폐하 혼자만 아시니 기밀을 다루는 직책을 벗겨 주시고 폐하 곁에서 청소나 하게 해 주십시오.'

석현은 자기가 궁궐문이 닫히는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황제에게 각인시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받고 있으니 물러나게 해달라는 말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원제에게 더욱 신임을 얻으려는 말이었고, 이를 계기로 자기는 많은 모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원제에게 말하려는 것이었다.

원제는 석현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모함받은 약자로 둔갑시킨 사술을 모르고 그를 철석같이 믿었다. 그리고 원제 통치기간 동안에 석현은 자기의 불법행위, 비위가 탄로 날 즈음이면 이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모면하였고, 끝까지 원제는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속임을 당한 원제의 치세는 한나라를 기울어지는 시기였다.

사실 원제가 죽은 다음에 성제, 애제를 거치기는 했지만 원제의 황후인 왕정군(王政君)이 태황태후로 권력을 쥐었고, 그의 조카인 왕망(王莽)은 한왕조의 선양을 받아 신(新)왕조를 창건했으나, 결국 원제의 시대가 그 실마리를 연 것이다. 그러니까 원제가 나라를 망쳐 먹기 시작한 셈이다. 가까이 석현에게 속았고, 그 어리석음은 왕조가 멸망하는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다.

후세에 역사가 순열(荀悅)은 속임을 당한 원제를 보면서 먼저 공자의 말을 인용한다. '아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실제로 보지 않고 겉으로 아침하는 말을 믿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바로 아침하는 석현을 멀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본 칼럼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공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이며, 그것을 실현할 능력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투표하는 유권자는 착하기만 하고 멍청한 원제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이번 선거를 끝내고 몇 년 지나서 다시 투표했던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다는 말이 길거리에서 들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잘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고 아침하는 사람은 석현과 다를 것이 없다. 그보다 필요한 사람은 나라의 먼 장래를 계획하고 앞에서 그 길로 국민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아침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도자가 아닌 사기꾼이나 정상배와 다름 아니다.

권혁은 농구협 회장 ‘농구 발전’ 위해 10억 기부

권혁은(아이에스동서) 대한민국농구협회 회장이 농구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농구협회에 10억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2월 17일 농구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한 내용의 후속조치이다.

종합건설회사 아이에스동서의 회장이기도 한 권 회장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이어가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차상위계층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후원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늘어나는 학대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 권 회장이 지난 10여 년간 기부한 금액만 366억원에 달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에는 사제 140여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농구 꿈나무 장학생’을 추가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대병원 권형정 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표창

울산대학교 병원 직업환경보건팀 권형정(사진 왼쪽) 과장이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1997년 울산대병원에 입사한 권 과장은 2006년부터 직업환경보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자로 보건상담과 건강증진 활동 업무를 통해 근로환경개선과 업무 관련 질환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직업건강간호협회 울산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진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교육감 권한대행 ‘2021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 수상

권진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현장과 행정 분야 전문성 강화에 헌신하고, 체덕지(體德知) 중심의 교육비전을 제시하면서 인천교육 발전과 교육공동체 의식함양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21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시사투데이 주재·주관)'을 수상했다.

권진수 전 교육감 대행은 “전통적 관념인 지·덕·체(知德體)가 아닌 체·덕(仁)·지(體德(仁)知)의 순서로 교육의 우선순위를 바꾸자” 인성과 학력이 동반 향상됐다”며 “오늘도 ‘지식없는 선은 나약하고, 선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는 교육철학 아래 체덕

지가 많은 학교로 퍼져 나가는 꿈을 꾀다”고 전했다.

‘코이’란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5~8cm,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15~25cm, 강에서는 90~120c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주면 대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코이의 법칙’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짐’을 일컫는다.

권진수 전 교육감 대행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관, 교육부 국장, 호주 Griffith대학, South Australia대학 객원연구원, 서



울대학교 시설관리국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등을 역임하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교육행정가'로서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헌신해왔다.

지난해 '교육포럼 체덕지'를 설립하여 현재 540여 명이 가입한 포럼은 오로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과 올바른 교육방향을 제시해 나가는데 고민하며, 그 답을 찾고 있다.

권여름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대상

권여름의 ‘Y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제1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대상을 차지했다.

권 작가는 “지금 여기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작가가 되겠다.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여 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여름은 전주대 사범대 국어교육과와 한국고원대 대학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군산진포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2021年 7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6. 29. ~ 7. 28. 총 납부자 6명

(이름순)		단위:원	
* 권태남	30,000	권오훈(대구 달성군)	30,000
권동욱(부천)	30,000	권용만(경기연천)	30,000
권오학(포항)	30,000	권형기(제천)	30,000
		총 180,000원	

*표시한 납부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총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총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총회)

♣ 문의전화 : 02-2695-2843-4

안동권씨 대총회